

# 중소기업계 “R&D예산 복원하고, 상생금융지수 도입해야”

## 한동훈 당대표 초청 간담회

중기중앙회, 정책과제 45건 건의  
외국인근로자 채용방식 개선 등 주장  
한동훈 “은행업계 예대마진 줄여  
대출이자 낮추는 움직임 필요”

중소기업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 및 장애인 고용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한대표 외에 김상헌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도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지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택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용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5200억원으로 올해의 1조3900억원보다 다소 늘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보다 2500억원 가량이 깎였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한동훈(왼쪽 다섯 번째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조77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에도 크게 줄어 중소기업 10만여개에서 12월에 최종 의결하는 과정이 남은 만큼 여당 대표에게 삭감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유연근로제도 도입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인 만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R&D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의 범위를 금융영역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 운영안에 따르면 평가는 금융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되 대상은 처음엔 4대 시중은행에서 시작해 향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을 위 상생의 우열을 가려야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목소리다.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마저 3D 업종을 기피하고 있어 일손 부족이 여전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다보니 수행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 요청이 빈번하고 과다한 급여 인상 요구와 잔업 요구 등으로 기업들의 피로도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

자가 입국하기 전 화상 면접을 통해 구직 및 채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하고, 상방 협의회 채용시엔 5년 이내에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단체협상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경비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페넌테크(Femtech) 산업 육성 등도 건의했다.

한 대표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

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가 강조하는 6대 격차 중에서 804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면으로는 ▲벤처투자 신규 재원 발굴 및 참여주체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 ▲가업승계 관련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과건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제정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코웨이, 3년간 211억 투입... “협력사와 동반성장”

## 이랜시스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협력사 거래 ‘대금3원칙’ 준수 노력

코웨이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해 3년간 211억원을 지원해 양극화 해소에 추가로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코웨이, 협력사 대표 이랜시스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청라 이랜시스 본사에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협약대기업이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코웨이는 2019년 첫번째 협약 후 이번에 재협약을 체결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211억원의 지원을 약속해 동반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코웨이는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주기, 제때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의 기술력 강화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전사·홍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전시회(P.I.F)를 개최해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신제품 개발, 기술 국산화, 공동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을 돕는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 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이달근 동반위원장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다시 한번 협약에 참여해 주신 코웨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협력사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위에서도 코웨이와 지속 협력해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지원 방안을 마

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상생 추진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웨이와 파트너사 간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파트너사의 경쟁력이 곧 코웨이의 경쟁력인 만큼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상호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며 “코웨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기관표창·우수상 등 정부박람회 ‘3관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기관 표창을 포함해 3관왕을 수상했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최해 AI기술 등을 활용한 정부혁신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했다.

중진공은 박람회 첫날 현장발표로 진행한 ‘2024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에서 중소기업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를 활용한 기업경영 지원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중진공이 40여년 이상 축적한 총 58만개사의 기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성장경로 예측 ▲기업맞춤형 정책사업 추천 ▲수출품목 제안 ▲마케팅 등 기업 포지셔닝 등의 정보를 비즈패스파인더의 분석서비스로 제공하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노력과 청사진을 담은 ‘대국민 보고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표창도 수상했다. 한편 이튿날 일정으로 진행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선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부문에서 혁신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승호 기자

# 에몬스,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가정용가구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18일 에몬스에 따르면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는 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제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측정 모델

로,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품질 우수성을 소비자 및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국내 최고 권위의 품질만족도 종합지표다.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는 총 119개 부문을 대상으로 388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7만7000명이 사용 품질과 감성품질을 함께 평가했다. 해

당 평가로 에몬스는 ‘가정용 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해 13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에몬스 관계자는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선정은 에몬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가 직접 선정해서 주는 수상인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지난 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에몬스 김판수 감사(왼쪽)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